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무얼 먹을 것인가?

이건 약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 가짜 세상이었다니? 21세기를 앞두고 개봉되어 엄청난 지적 충격을 줬던 SF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나는 즈음이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작동하는 거 같다. 진짜 감지 않은 이 현실은 대체 무엇일까?' 의심했던 상황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진짜 현실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노예로 사용되고 있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여겼던 세상은 가상현실의 거짓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금이 딱 그렇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내가 알았던 이 세상이 완전 가짜였음이 드러난다. 게다가 그 거짓이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왔다는 것이 놀랍다. 그러니 '멘붕'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어딘가 이상했던 것에는 그 뒤에 다 그림자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아니었다. 지능을 헤아릴 수 없는 수상한 비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왜 저렇게 비문이 많을까? 연설비서관은 대체 뭐하는 거지? 최순실의 '빨간펜'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장관들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받지 않을까? 왜 서면 보고를 더 선호한다고 할까? 최순실의 사전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가족을 멀리할까? 어려운 시절을 같이했던 동생들조차 만나지 않을까? 최순실 또는 최태민의 오래된 주문이 있었다는 설에 수긍이 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나갔던 온갖 행사들이 떠오른다. 문화의 날 행사, 늘품체조 행사, 해외 한복 쇼, 해외 태권도 행사 등. 거기에는 최순실, 차은택,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러 '문화융성'을 부르짖을까, 창조경제를 강조할까? 그 뒤에는 거대한 문화행사 사업이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드러나기로는 평창 동계올림픽마저 저들의 놀이마당이었다고 하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도 분당질했다고 한다. 전국의 창조혁신센터 들마저도 부실 재단들이라고 한다.

그것뿐인가? 박근혜정권의 석연찮은 짝꿍 인사, 능력 인사에도 배후가 있었다. 특혜가 있었고 반칙이 있었고 보복이 있었고 응징이 있었다. 장관급이나 청와대 수석급이나 대사급이나 기관장 급만이

아니다. 말단 과장급을 좌천시키다 못해 쫓아내는 데까지 대통령의 레이저 시선과 단말말 발언이 사용됐다. 대체 최순실을 얼마나 믿으면, 친구의 딸 정유라가 얼마나 귀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대기업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르면 나오는 돈주머니였다. 과연 대기업들이 대통령이 내놓으리라고 순순히 몇 십억, 몇 백억을 내놓을 처지인가. 그럴 자들인가? 어떤 거리가 있었는지는 이제부터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매트릭스'의 주인공처럼 궁극적인 선택에 직면한다.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파란 알약을 선택하면 이 거대한 거짓을 적당히 묻어 버리고 내일 아침 일어날 것이다. 빨간 알약을 선택하면 이 가짜 세상의 거대한 거짓을 밝혀내고 누가 왜 그 거짓을 만들어 왔는지, 공범은 누구이고 주범은 누구인지 밝혀내는 고통스러운 진실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매트릭스보다 더한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러한 짓을 해 왔는지 전혀 납득

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대한 집착, 최순실 일당에 대한 애착심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른바 종교적 시사, 가족관계적 변수에 대한 설이 난무하는 이유일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더구나 어떻게 이 거짓의 세계가 최소 10년, 최대 40년을 유지되어 왔느냐 말이다. 그동안 난무하던 설, 주변 인물들의 증언, 주요 정치인들의 지적들이 어떻게 덮이고 묻히고 숨겨져 왔던 건가? 어떻게 대통령직의 기본은커녕, 국회의 원칙의 기본, 공인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대통령직까지 올렸던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권력이 저지른 온갖 추잡한 행실을 숨겨 왔던가? 그 메커니즘의 실체를 밝혀지 않고서 우리의 미래는 없다.

전대미문의 악몽이다.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헤어지지 못할 악몽이다!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실명 부르는 안과질환



이준성 보리안과병원장

에서 시세포가 죽어가는 병이다. 종류는 크게 신생혈관의 유무에 따라 건성황반변성과 습성황반변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건성황반변성은 망막바깥층에 드루젠이라는 물질이 쌓여 혈류나 영양공급을 막아 서서히 황반부위의 망막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초기의 건성황반변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력예후는 습성황반변성에 비해 좋은 편이다. 하지만, 방치하면 습성황반변성으로 진행하거나 말기의 건성황반변성(황반위축)으로 발전해 실명할 수 있다. 습성황반변성은 망막의 바깥쪽에 있는 맥락막이라는 조직에서 신생혈관이 발생해 출혈이나 삼출물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병리기전으로, 습성황반변성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진단 후 2년 내로 실명에 이르게 된다.

초기의 습성 및 건성황반변성의 경우 루테인 및 기타 항산화제가 함유된 영양제를 복용하면 말기의 황반변성으로의 진행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반변성의 경우 황기나 진행하지 전에 진단된다면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주사제를 눈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약화

방지 및 시력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 모두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 글세나 선이 휘어져 보인다가나 사물을 볼 때 가운데 부분이 가려져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황반변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안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다음으로 당뇨망막병증은 당뇨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당뇨는 미세혈관의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 주된 병태생리인데, 당뇨로 인해 망막에 존재하는 혈관에 이상이 일으켜 출혈, 부종, 삼출물(뽀꺼기), 견인막 및 그로 인한 망막바리 등이 발생되는 합병증을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한다. 당뇨병 환자의 약 절반 정도는 이 당뇨망막병증이 생기게 되고 이는 성인에게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야 진행하지만 무엇보다도 당뇨의 유병기간이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에 중요하다.

황반변성과 마찬가지로 신생혈관의 유무에 따라 신생혈관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증식당뇨망막병증과 신생혈관이 발생한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나뉜다. 증

식당뇨망막병증에 이르면 병망막에이저 광응고술이나 유리체제거술 등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하더라도 심한 시력저하를 막기 어려우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해 눈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의사나 의료진의 실수로 발생한 질환을 의인성 질환이라고 한다. 예전에 농담을 좋아하셨던 모교의 교수님께서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은 의로의 발전으로 인구의 수명연장에 따른 의인성 실명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 두 질환이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다른 질환과 달리 적절한 치료법 없이 발병되면 회복되지 못하고 실명까지 이르는 공통점을 꼬집으셨으리라. 안과의로서 답답할 노릇이지만 희망을 찾자면 두 질환 모두 초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공통점 또한 있다.

실명의 원인뿐만 아니라 여러 영상매체와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 실명의 의미까지 달라진 율해 맞이하는 '눈의 날'은 각별하다. 눈에que 안녕을 묻고 안과 검진을 통해 눈 사랑을 실천했으면 한다.

기고

'풍류남도 나들이'로 새로운 풍류를 만들자



임준성 광주여대 교양교과과정부 교수

활용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주관부서인 광주문화재단 시민문화관광팀에서는 별도의 사업팀을 꾸려 박종철 감독의 지휘로 현재까지 교육, 체험, 공연, 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소재원의 경우 매달 보름날에 맞춰 '풍류정원 달빛공연'이라 하여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의 신작품 '소쇄원사계'를 발표하여 문화관광콘텐츠로서 가능성을 선보였으며, 식영정과 환벽당에서는 명사들을 초청하여 인문학 강의와 선비문화체험에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누정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16세기 인물 면양정 송순(宋純)의 회화면(回樛面)과 정조(正祖) 때 광주향교에서 시행된 과거시험을 재연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함께 고민해 볼 문제이다.

먼저 '풍류'를 생각해보자. '풍류'는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또는 그러한 생활이나 태도'라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체가 객체에게 과연 '풍조있게', '멋스럽게' 전달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다. 주지하다시피 호남은 무등산을 배경으로 '계산풍류'(溪山風流) 구현해 왔다. 그 절정의 시기는 16세기로 면양정 송순, 석전 임억령,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등 당대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하였다. 이들은 학문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조경 등 다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이들은 '풍류'를 주체가 되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산했다.

그 한 예로 양산보(梁山浦)가 세운 소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림이다. 김인후는 '소쇄원48영'이라는 연작제영시를 남겨 소재원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문화 예술이 결합어져 '풍류'의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소재원뿐만 아니라 식영정, 면양정 등 호남의 주요 누정들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바로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행여 단순한 일회성에 그칠까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다. 사업의 객체가 되는 시민들이 호남의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를 단순한 구경꾼으로서

가 아니라 몸소 체험하여 이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여 생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날로 인정이 각박해져가는 세대에서 현대인들은 여유조차 사치라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듯 급한 발짝 뒤로 물러나 여유를 찾는 일이 여려모로 아쉬운 상황이다.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낀 생각을 시 한 수, 또는 그림으로도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풍류남도 나들이'는 비로소 주체로서 참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21세기 풍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16세기 호남의 선비들의 '계산 풍류'를 구현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에 걸맞는 풍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21세기 풍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연암 박지원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 하여 '옛 것을 본받더라도 오늘에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했다. 자연을 사랑하고 문학예술을 즐기는 생활에서 여유를 잃지 않았던 호남 특유의 풍류에서 참맛을 찾아 이를 오늘날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社說

트럼프 당선 우리나라 안보·경제 우려된다

'아웃사이드'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대로 미국을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어찌 미 전역에서 열린 대선 투표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에 오르는 파란을 연출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경제와 안보 등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사태다. 당장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역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한미간 안보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흔들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결국 '트

럼프 리스크'에 한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표적 삼아 '안보 무임승차'를 출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그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트럼프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강경책을 들고 나올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관계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파문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칫 타이밍을 놓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히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경제 분야의 경우 국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향후 미국내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트럼프 진영과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검찰 '차은택 문화농단' 철저히 파헤쳐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광고 감독 차은택 씨가 해외 도피 중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박근혜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려 온 차 씨는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문화계 실제로 군림하면서 각종 인사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의 회장으로서 권력을 휘둘렀고,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 C사에 자본 80%를 넘기라고 회유·협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별다른 이력도 없이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임명됐고, 이후 공교롭게 대략원 은사인 김중덕 당시 홍익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 수명여대 교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각각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됐

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에 오른 김형수 연세대 교수도 차 씨의 대략원 은사다. 최 씨와 차 씨가 각종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차 씨는 정부의 각종 문화 정책에 관여하고 관련 국책 사업을 떠났다. 검찰은 이 같은 '문화 농단' 부분은 물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축소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차 씨가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추진, 성격이 비슷한 내용의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위축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지금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 역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프로젝트 백지화, 전시예술감독 해임 등 문화중심도시 사업 축소 배후로 '최순실-차은택'을 지목하고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시민은 10년 이상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어떻게 순식간에 축소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확실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無等鼓

"이런 판소리도 있구나. 재미있네." 대학 시절 '금수궁가(金水宮歌)'를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이었다. 전통 판소리 '수궁가'에 현대적 색채를 입힌, 문자 그대로 '오늘의 수궁가'였다. 작품에서는 용왕을 민중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로 그린다. 자라는 입신양명을 꿈꾸는 출세지향주의자로, 기지와 재담으로 난세를 극복하는 토끼는 서민 모습으로 대비시켰다. 시종과 딱 맞는 작품이었다.

당시 소리꾼은 김명근 전 문화장관.

박초월 선생에게 소리를 배운 그는 영화 '서편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판소리 '순실가'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뒤따고 있는 요즘 무릎을 차게 만드는 또 한편의 판소리를 만났다. '우주의 기운이 몰려온다, 비정상적인 혼을 정상으로'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되는 '순실가(順失歌)'다. '사이비 종교계의 황태자 단군미륵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21세기 풍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16세기 호남의 선비들의 '계산 풍류'를 구현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에 걸맞는 풍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21세기 풍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연암 박지원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 하여 '옛 것을 본받더라도 오늘에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했다. 자연을 사랑하고 문학예술을 즐기는 생활에서 여유를 잃지 않았던 호남 특유의 풍류에서 참맛을 찾아 이를 오늘날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에니메이션과 함께 볼 수 있는 5분 분량 '순실가' 속 순실여왕은 '말 유라

세월호 사건 때 "이 것에 대해 글을 안 쓰면 내가 시인인가"라는 생각에 '순수기도

미안한 사일'을 썼다는 시인 함민복의 말처럼 예술인들은 '시대의 거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여명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많은 예술인들은 각자 목소리를 내며 노래할 터다.

이제는 전 세계 예술인들이 바빠질 듯하다. 여성과 유색인종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트럼프의 발언, 정책, 성품 등을 보면 조만간 전세계에서 '트럼프가(歌)'가 울려 퍼질 듯하다. 슬픈 일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